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

모두 말씀

2024. 3. 28. 14:0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16F)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업권 등 쏠 금융업권,
그리고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UNIST 등 학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AI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

'22.11월 출시된 생성형 AI 챗GPT를 필두로
AI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틀 안에서 답을 내는
판단형 AI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생성형 AI로 흐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요약·번역 등 일상생활부터
코딩 등 전문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도 생성형 AI의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생성형 AI의 안전한 개발과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집단이 논의하는 “AI 안전 컨소시엄”을 지난달 발족하는 등 생성형 AI의 혁신 생태계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EU의 경우 생성형 AI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제재토록 하는 AI 법안이 이번달 최종 승인되어 '25년부터 단계적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 금지된 위험 - 고위험 - 제한적 위험 - 최소/무위험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초거대 AI 초일류 국가 도약*”을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국정과제

III. 금융권 AI 협의회 주요 논의방향

모든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은 해당 분야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은

- ①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 ②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 ③ 디지털 금융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 업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금투(2.6일) → 은행(2.21일) → 보험(2.28일) 총 3회 실시

- ① 먼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이 필수적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② 또한, 생성형 AI의 학습 등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개별 회사가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결합,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 ③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권 AI 협의회」에서
면밀히 논의하여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동향을 함께
공유하여 우리 금융회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협의회가 금융권의 양질의 데이터 공동 확보,
AI 공동학습 등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과
파리 소르본대학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자유와 권리의 보장, ②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③안전과 신뢰의 확보,
④디지털 혁신의 촉진, ⑤인류 후생의 증진

이에 더하여 지난주(3.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AI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생성형 AI의 활용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발족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금융권에서 AI 활용이 활성화되고,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발족식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의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